

<2011년 11월 23일 수요일말씀>

## 주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본 문 누가복음 17장 12-19절

갈라디아서 6장 7-8절

시편 100편 1-5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감사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감화와 뜨거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감사 주간’입니다. 주일에 이어 오늘 밤에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초 말씀에는 영상이 없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집중하여 선생님께서 주님과 함께 해 주시는 전초 말씀을 잘 듣고, 이어서 영상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목적인 바를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웅장한 축복과 기적의 축복을 받으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아낌없이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2-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자리에서 10명의 나병환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자기 병을 고쳐 주기만 하면 별짓 다 하고 평생 주님만 위해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땅에 심으면 땅에 속한 것을 거두고, 하늘에 심으면 하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대로 100배, 300배 더 주십니다.

그동안 많은 섬리인들이 감사에 대한 간증 편지를 선생에게 보내왔습니다. 감사 편지들이 너무 많아서 설교 때 다 이야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과 선생이 하고 싶은 말씀을 못다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내용들을 보고 한마디로 말해 준다면, 참으로 표적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과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 앞에 아낌없이 물질로 감사했더니 생각지도 않게 드린 것의 10배 이상을 받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20배 이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십일조를 꼬박꼬박 했는데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낸 사람은 이 사람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늘 앞에 감사했더니 다 축복을 받았다는 편지였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해야 됩니다. 100m를 뛰더라도 100m까지 끝까지 뛰어야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정 중에도 축복을 받지만, 끝까지 할 때 그동안 수고한 것의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하늘 앞에 할 것은 꼭 하는 것입니다.

꼭 감사생활을 해야 됩니다. 물질의 십일조도 드리고, 생활의 십일조도 드리며 마치 사랑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듯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선생은 십일조는 기본이고, 나의 것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다 드리고 필요한 것만 주님께 타서 씁니다. 하나님과 주님께서 각종 방면에서 선생을 축복해 주시어 그동안 섬리역사를 세계적으로 경영해 왔습니다.

주님은 섭리역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선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행하고 감사한 것은 다 물질로만 축복해 주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물질로, 재물로만 다 축복을 주면 어떤 종교같이 축복받은 재물로 사업하고 경영하느라 신앙 역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나의 역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끝난다. 고로 육적인 역사가 되고 만다. 고로 신앙의 축복을 못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생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섭리사 사람들에게는 영적 축복을 70% 이상 주고, 재물 축복은 적당히만 주겠다. 구약종교와 신약 종교를 보아라. 그리고 섭리역사 앞의 전 역사를 보아라. 개인도 마찬가지다. 내가 생활의 축복을 조금만 주었을 때는 신앙을 자본으로 삼고 살더니만 물질, 재물, 돈, 경제 축복을 주니 개인도, 교파도, 구약인들도, 천주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모두 물질과 재물 신앙이 되지 않았느냐.” 하고 깨우쳐 주시며 그 실상을 역사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아라. 재물보다 영원히 쓰는 것은 신앙의 축복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시대를 아는 말씀이다. 기도다. 신령함이다. 영과 육의 건강이다.” 하셨습니다.

물질의 거부는 세상에서 누리고 끝나지만, 신앙 축복을 받은 자들은 육적으로 빠지지 않고 구원에 더 이상적으로 안전하게 빠져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선생은 주님께 간구하기를, 섭리인 모두가 육적인 것은 배고프지 않게 헐벗지 않게만 해 주시고, 영적 축복을 최고로 충만하게 달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못 누립니다. 태산같이 물질 축복을 받으면 사업해야 됩니다. 고로 다른 교파들같이 신앙인으로서 육적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섭리사는 그나마 육적 물질 축복을 받은 것도 모두 신앙으로 썼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세계 어떤 교파보다 신앙세계를 잘 살피고 영적 말씀이 충만하여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게 왔습니다. 결국 주님 재림 역사의 중심권 신앙인들이 됐습니다.

여자가 클 때까지 돈이 없어도 잘 가꿔서 남자를 잘 만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 신랑이시니 우리가 신부로서 잘 가꾸고 성장하여 주님 잘 만나고, 만난 후에는 이혼하지 않고 살면 최고입니다. 주님은 신부가 육적으로 빠지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오직 온전하게 신부로 단장하여 주님 모시고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모두 다 가지고 계시니,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께 달라고 하면 됩니다. 신부로 단장한 자들이 달라고 하는데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를 굶기시거나 옷이 없어 벗고 다니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어서 시대 말씀을 듣고 온전히 행하여 너희 육의 행실로 너희 영을 변화시켜 너희 영혼이 천국에 가게만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가면 신랑 되신 주님이 너무 많이 주셔서 영원히 써야 됩니다. 천국의 집은 돌이나 철이나 나무나 시멘트 콘크리트로 짓지 않았고, 영원히 쓰게 지었습니다.

물질 재물 축복보다 신앙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신앙 축복’을 유산으로 받고, 오직 복음을 전하여 신앙으로 열렬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고로 모두 하늘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섭리역사도 전세살이를 하면서 오직 생명 관리, 신앙 관리 축복을 받으면서 왔습니다. 고로 선생도 지금껏 발을 쭉 뻗고 살 집을 신경 안 쓰고, 복음의 현장에서 뛰면서 살았습니다.

신앙 갑부가 최고입니다. 육적 축복을 받아 땅을 많이 사고 건물도 많이 샀지만 신앙이 저차원에서 살고 있는 다른 종교들은 하나도 안 부럽고 전혀 욕심도 안 납니다.

제자들은 선생에게 우리도 탄 종교같이 신경 써서 경제도 펴자고 늘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말했습니다. “안 돼. 나는 종교 가지고 돈 벌고 사업하는 기술이 없다. 오직 주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말씀을 최고로 전해 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향기만 풍길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에게 경제 축복이 아니라 신앙의 영적 축복을 주셨다. 주님이 주신 대

로 사명이다. 돈과 재물을 가진 부자 종교들은 가다 보면 신앙까지 팔아 버리게 된다. 돈 많으면 그 돈으로 선교한다고 말들 하지만, 축소해서 개인도 보아라. 결국 경제 때문에 신앙까지 팔아먹는다. 나 따라오면 헐벗지 않고 굶어 죽지도 않으면서, 영은 빛나게 하여 주님 제대로 맞고 천국 가게 해 줄 테니 한눈팔지 말고 따라와라.” 했습니다.

섭리사를 따르다가 배고프고 춥다고 나간 자들을 보면, 못 먹고 못 벌고, 그나마 신앙까지 다 팔아서 장사꾼이 되었고, 그것도 망했습니다.

교회만 크게 짓다가 영적 양식이 없어 영이 굶어서 젊은이들을 장사지내면 주님이 실망하십니다. 선생도 기독교같이 교회나 크게 지었으면 아마 건물 하나 크게 짓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은 전세살이, 월세살이 하면서도 오직 ‘신앙’ 만 중심했습니다. 주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중심했습니다. 초가집에서 아들들만 낳아 기르듯 신앙의 자녀만 길렀습니다. 고로 민족과 세계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역사를 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주님은 축복으로 자연성전을 지어 주셨습니다.

섭리사가 돈 없어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앙 재물, 영적 재물을 충만히 받고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선생은 우주와 태양계와 지구와 만물을 창조하시어 사람이 살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 성삼위께 늘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또 매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살 영혼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며, 꼭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겠다고 기도합니다.

또한 그동안 섭리역사를 펴시며 섭리인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심에 감사하고, 시대 재림 말씀을 주시어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게 해 주심에 감사하고, 30년 동안 육적 휴거를 하게 해 주시어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육이 땅에서 시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육이 사망권을 벗어나 온전해져야 땅에서 이루는 육적 휴거를 하고, 그

영도 변화를 받아 천사장이 나팔 불 때 주님이 영으로 오시면 주님을 맞아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주님을 믿는 자들은 휴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도 모르면서 주님을 맞으려고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 축복을 받았어도 영적 축복을 못 받으면 육적으로 가니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알고 믿어야 제대로 주님을 맞고, 육적 휴거도 제대로 이루고, 영적 휴거도 제대로 이룹니다.

선생은 가정에서 부모가 줄 재산이 없어 부모에게 신앙 축복기도만 받았습니다. 신앙 유산이 하늘 천국 유산이 되었습니다. 각 종교 교파들이 건물과 빌딩들을 자랑해도 안 부럽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집 빌딩은 영으로 가도 한참 갈 정도로 크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빌딩은 그에 비하면 하나의 초가집에 불과합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상1> 예수님 출현

### <예수님 말씀>

‘감사’는 영적인 쪽도 하고 육적인 쪽도 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도 받고 육적으로도 받았기 때문이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첫째, 영적으로는 사탄에게서 지켜 주시고 말씀의 양식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어 구원받아 영원불변의 영이 되게 하시고 육적 휴거를 이루어 영적 휴거를 준비하게 하셨으니 **감사하라는 것이다**. 둘째, 육적으로는 육의 양식을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고, 매사에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인사탄들에게서 지켜 주시고,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여 육적 휴거를 이루게 해 주시고 **하늘의 신부가** 되어 살아가게 해 주셨으니 **감사하라는 것이다**.

물 옆에 사는 자는 생활이 되어 물의 고마움을 잊고 물을 창조하신

존재자에게 감사하는 것을 잊는다. 그러나 1년씩 물이 없어 겨우 입만 축이며 땅을 파며 고생해야 물을 달라고 귀청이 터지게 하나님을 부르고 그동안 물을 쓰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 시대 사람들도 그러하다. 부한 자는 감사가 적고, 가난한 자가 더 감격하여 얻을 때마다 감사한다.

## <영상2> \* 설교 내용 속도에 맞춰 영상 제작

### ① 영과 육이 나오면서 해당되는 영상 제작

<자막> 첫째, 영적으로는 사탄에게서 지켜 주시고 말씀의 양식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어 구원받아 영원불변의 영이 되게 하시고 육적 휴거를 이루어 영적 휴거를 준비하게 하셨으니 감사하라는 것이다. / 둘째, 육적으로는 육의 양식을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고, 매사에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인사탄들에게서 지켜 주시고,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여 육적 휴거를 이루게 해 주시고 하늘의 신부가 되어 살아가게 해 주셨으니 감사하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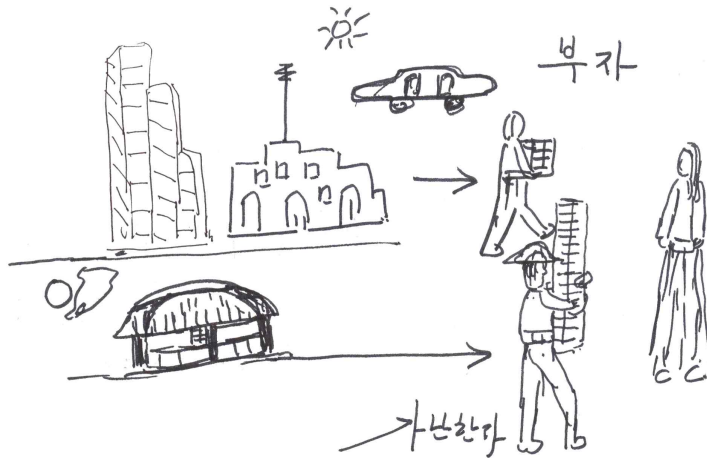
### ② 해당 영상 제작 (실제 배경을 사용할 것)



<자막> 물 옆에 사는 자는 생활이 되어 물의 고마움을 잊고 물을 창조하신 존재자에게 감사하는 것을 잊는다. / 그러나 1년씩 물이 없어

겨우 입만 축이며 땅을 파며 고생해야 물을 달라고 귀청이 터지게 하나님을 부르고 그동안 물을 쓰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된다.

### ③ 해당 영상 제작 (실제 현실을 촬영할 것)



<자막> 이와 같이 이 시대 사람들도 그러하다. 부한 자는 감사가 적고 오히려 더 달라고 한다. 가난한 자가 더 감격하며 얻을 때마다 감사한다.

너희는 작은 것과 큰 것을 따지지 말고 받은 대로 감사하여라. 작든지 크든지 먹고 입으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꼭 감사의 제단을 드려야 한다. 감사하지 않은 개인, 가정, 민족은 결국 감사가 없는 세계로 가게 된다.

육적 세계의 육신을 위한 축복과 영적 세계의 영을 위한 축복을 주심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라. 자기가 사랑하는 자라도 받기만 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는 마음이 잘못된 자이니 더 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농부가 거두기 위해 씨를 뿌리듯이, 너희도 신앙 안에서 거두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진정 행함으로 거둘 것의 씨를 뿌려라.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생각하고 감사하여라. 자기와 직접 관련된 돈이나 물질만 생각하지 말고, 성삼위가 인간이 계산하는 역사로 130억 년 이상 걸려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여 자연을 통해 현실에 돕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여라. 네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의 것까지 모두 도왔으니 감사하여라.

감사할 때는 꼭 돈이나 어떤 물질로만 감사하려 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의 기도 제단을 쌓고, 평소에도 감사할 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입술로 감사하고 행실로 감사하여라.

늘기 전에 네 입과 몸을 놀리지 말고 입술의 감사의 열매를 맺어라. 감사하지 않는 생활을 하면 마음이 늘 괴롭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마음이 늘 기쁘다. 어느 때는 환난, 핍박,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며 기도하여라. 더 잘해 주려고 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이다.

신앙이 안 죽고 사는 것이 신앙 경영을 잘하는 것이요, 이런 자가 최고 부자다. 세상 끝자락에 사는 너희는 무엇보다도 저마다 신앙의 재별가가 되어야 한다. 의가 돈이다. 선이 돈이다. 신앙의 공적이 재물이다. 너희는 없다 하나, 많은 것을 얻었다. 신앙의 영원한 것을 얻어야 된다. 네 영혼이 잘되면 네 육신도 잘된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나 예수가 이스라엘에 육신의 몸으로 와서 33년 동안 세상에서 살 때, 그때 치는 나이로 인생 반평생을 살았다. 그때는 60세면 나이 먹어 죽는 때였다. 반평생 살았어도 재물이 없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여!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며 따랐어도 나는 세상 건물 하나도 안 남기고 갔다. 오직 ‘신앙’ 이었다. 오직 ‘말씀’ 이었다. 오직 ‘구원길’ 을 남기고 갔다.

먹고 입는 것은 그때그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사람들이 주는 것도 못 먹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오직 복음만 외쳐 복음의 재산만 남겼다(막 3:20, 막 6:31). 제자들은 받은 육적 유산이 없으니 배고파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다(눅 6:1). 또 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는 다시 아무것도 없으니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로 갔다 (요 21:2-3). 내가 무엇을 남겼느냐. 나는 제자들에게 ‘영원한 재산’ 을 물려주었다.

<영상3> \* 설교 내용 속도에 맞춰 영상 제작

① 해당 영상 제작 (영화 영상)

<자막> (나 예수가 이스라엘에 육신의 몸으로 와서 33년 동안 세상에서 살 때, 그때 치는 나이로 인생 반평생을 살았다. 그때는 60세면 나이 먹어 죽는 때였다. 반평생 살았어도 재물이 없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여!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며 따랐어도 나는 세상 건물 하나도 안 남기고 갔다. 오직 ‘신앙’이었다. 오직 ‘말씀’이었다. 오직 ‘구원길’을 남기고 갔다.

② 해당 영상 제작 (영화 영상)

<자막> 먹고 입는 것은 그때그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사람들이 주는 것도 못 먹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오직 복음만 외쳐 복음의 재산만 남겼다. 제자들은 받은 육적 유산이 없으니 배고파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다. 또 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는 다시 아무것도 없으니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로 갔다.

③ 육과 영이 사망에서 생명권으로 나온 모습, 그리고 천국

<자막> 내가 무엇을 남겼느냐. 나는 제자들에게 ‘영원한 재산’을 물려주었다.

이 시대 너희에게도 너희 선생 통해 영원한 재물인 신앙의 재산을 유업으로 주었으니, 육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얼마나 잘했느냐. 지구 세상에서 나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 수십억 명이다. 목적이 영혼 구원이다. 신앙 재산이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너희는 나의 재림을 맞아야 된다. 육신은 땅에서 휴거되고, 영은 하늘로 휴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앙의 재산’이 있어야 나를 맞는다. 신령해야 나를 맞는다. 신앙이 살아야 나를 맞는다. 신앙의 재산은 사랑과 진리와 기도와 나 예수를 향한 믿음이다. 신앙 자본의 최고는 ‘사랑’이다. 지상에서 나를 믿는 자들의 최고 소망인 나의 신부로 변화되려면, 사랑이 최고 자본이다.

너희는 신앙에 가난하지 말고, 사랑과 진리와 믿음을 가지고 더 깊이

기도하여 신앙의 재산을 풍부하게 가진 영적 거부가 되어라.

<영상4> \* 설교 내용 속도에 맞춰 영상 제작

① 주님의 재림 때 우리 영이 휴거되는 모습

(육은 땅에서 휴거 받은 육으로 살고)

<자막> 너희는 나의 재림을 맞아야 된다. 육신은 땅에서 휴거되고, 영은 하늘로 휴거되어야 한다.

② 예수님 재림 (천사장 나팔)

영 휴거 모습

↗      ↑      ↑      ↖  
'사랑' '진리' '기도' '믿음'

육 땅에서 휴거된 모습

(\* 원래 있는 그림에다가 육신이 땅에 살면서 자기 영을 휴거시키는 모습 중간에 '사랑', '진리', '기도', '믿음' 을 써 넣는다.)

<자막> 그러나 '신앙의 재산'이 있어야 나를 맞는다. 신령해야 나를 맞는다. 신앙이 살아야 나를 맞는다. 신앙의 재산은 사랑과 진리와 기도와 나 예수를 향한 믿음이다.

③ 그 중에서도 '사랑'이 최고

<자막> 신앙 자본의 최고는 '사랑'이다. 지상에서 나를 믿는 자들의 최고 소망인 나의 신부로 변화되려면, 사랑이 최고 자본이다.

④ 사랑, 진리, 믿음, 기도가 풍부하여 영적 거부된 모습

<자막> 너희는 신앙에 가난하지 말고, 사랑과 진리와 믿음을 가지고 더 깊이 기도하여 신앙의 재산을 풍부하게 가진 영적 거부가 되어라.

너희는 신앙의 재산을 가지고 육으로는 땅에서 나를 맞아 육적 휴거를 이루고, 영으로는 하늘에서 나를 맞아 영적 휴거를 이루어라. 신앙의 재산인 사랑과 진리와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를 맞아라. 이 시

대 내가 보낸 자를 증거하면서 나 예수를 믿는 것이다. 먼저 나 예수를 증거하여라. 그리고 내가 보낸 자, 나의 육이 된 자를 증거하여라.

너희 선생이 섭리사를 시작하기 전에 너희 선생의 가정은 가난하게 살았지만, 신앙의 가정이었다. 결국 그 가정이 나 예수를 믿고 사는 영적 축복을 받게 되었다. 고로 온 식구가 나의 사역자가 되어 7남매 중 6명이 목사가 되었고, 1명은 권사가 되었다.

그 중에서 너희 선생은 이 시대 나의 육의 사명자가 되어 최고의 큰 사명을 맡게 되었다. 세상은 아니라고 고함을 쳐도 너희 선생은 이 시대 나의 재림 시대의 대사역자로서 나의 신부요, 나의 몸이다. 내가 그를 통해 성약의 문을 열었다.

남는 것은 신앙 축복이다. 이를 알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듯이 꼭 신앙을 넣어 주어라.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해 준 주 예수다. 샬롬!

<영상5> 예수님 인사

해당 영상

<자막과 말씀> 신앙의 축복을 받아야 영원히 남아진다. 이 시대 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시대 진리를 받은 너희들은 감사함으로 나를 믿고 사랑하며 나의 말씀을 행함으로 영원한 것을 거두는 자들이 되어라. 샬롬!

<자막> 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